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서 영아반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연구

윤진주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A study on the infant daycare center teacher practicing infant's rights respect in care giving daycare center's daily work

Jin-Ju You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H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속에서 영아권리존중보육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J도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연령, 전공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등원시간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는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사보다 전문대졸 학력교사가, 등원시간과 낮잠 채우는 시간에는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영아의 권리를 보다 존중하는 보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연령과 전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는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에서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교사의 전공에 따라서는 자율성 존중, 개별성 존중에서 유아교육 계열 전공교사보다 보육복지 계열 교사가 영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영아의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관련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실행하는 영아 권리존중보육을 많이 할수록 영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적·질적으로 우수하고 균형 있는 영아의 권리존중 내실화를 다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childcare methods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respect infant rights in the everyday teaching curriculum at day-care centers occur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10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were in charge of the day-care center classrooms located in [G] city of [J] provinc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firmed that firs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verifying the extent to which childcare methods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respect infant rights in the everyday teaching curriculum at day-care centers according to the final education level, professional experience, age, and education major of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confirmed that when analyzing for arrival time for infant classroom childcare instruction at the day-care center and for the time spent taking the infant to and from the bathroom,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had graduated from 2 year colleges showed more respect for infant rights compared to that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had graduated from 4 year universities, and for the arrival time for infant classroom childcare instruction at the day-care center and nap times,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were above 50 years of age showed more respect for infant rights compared to that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were in their 30s and 40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firm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both the age and education major of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en examining each of the sub-factor, the age of the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respect for the infant's opinion,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for information provision,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older than 50 years of age were shown to exercise a higher level of respect for the infant according to the rule of prioritizing the infant compared to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in their 30s and 40s, and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majored in infant education-related majors exercised a higher level of respect for the infant for respecting freedom and autonomy compared to that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majored in welfare and childcare-related field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firm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between the two related variables. Therefore, this suggests that the more childcare methods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respect infant rights in the everyday teaching curriculum at day-care centers, the more childcare methods of infant classroom childcare teachers who respect infant rights occurred according to the rule of prioritizing the infant.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establish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 excellent and balanced respect for infant rights.

Keywords : daycare center; daily work; daycare center's teacher; infant; childcare that respects children's rights

2017학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Corresponding Author: Jin-Ju Youn(Howon Univ.)

Tel: +82-2-450-7371 email: jacki1219@howon.ac.kr

Received March 27, 2017

Revised April 19,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1. 서론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1].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여 법제 정비와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재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 보고 중에 있으며,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피해 아동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지원이 종결된 후에도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경찰·검사 배치, 권리교육 및 부모교육 활성화와 범정부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결정적으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2016년 3월 2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 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2]. 한편, 인촌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3].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4]. 이에 안전하고 정당한 보육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아들의 당연한 권리가 박탈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적·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영아학대의 발생은 영아가 우리 사회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의 비전인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의 실현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영아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애 주기에서 영아가 가

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영아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간혹, ‘작고 미약한’,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 비해 힘으로 밀리는’ 존재로 인식되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불인정되기도 한다. 즉, 영아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거나 성인과 분리된 존재로 구분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훈육을 하기도 한다[5].

아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이다. 아동권리(child rights)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6]. 가장 일반적이고 범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동권리의 정의 및 내용은 UN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4-3-1 개념이다. 4개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고, 3개의 원칙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며, 1개의 과정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6]. 특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동이어야 하며, 아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첫 번째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

UN아동권리협약에 정의하고 있는 아동은 전 세계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의 및 개념이 광범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개념을 취학 전 연령 단계,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들로 공간과 연령을 제한하였다. 즉,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3-1 개념에 준하되, 어린이집에서 만 3세 미만 영아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 보육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나 가족이 영아의 보육, 교육, 신변 등에 관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 영아들은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아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어서 보육교사는 영아가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영아의 권리 존중을 위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생애 초기의 사회적 환경이므로[8], 영아가 안

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9].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안전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10][11].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영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3세 미만의 영아반과 만 3세 이상의 유아반으로 편성·운영된다.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생애 발달에 견주어 봤을 때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로, 발달상으로도 급진적인 변화가 뒤따른다[12]. 이에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 차이를 숙지하고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13]가 발표한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들은 본인 스스로가 학대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어린 연령일수록 보육교사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는 영아가 자유로이 생각과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정당한 힘과 자격이 있음을 인식하고, 영아들이 이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리 행위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영아학대 사건들은 그 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영아권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보육교사들이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실제 영아의 전인발달과 교육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교사들은 영아권리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당사자인 동시에 영아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해야 하는 현실적 실행자이다. 영아권리를 올바르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현장에서 영아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영아의 순수한 권리 보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영아의 발달 수준과 학습 특성에 맞게 하루 일과를 편성·운영할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천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우선 고려되어야 부문은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되는 교사이며, 영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실행 역시 보육교사의 올바른

자각 없이는 영아의 정상적인 하루 일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즉,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아권리 중요도에 대한 깊이와 이해의 폭에 따라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속에서 영아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실행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하달식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영아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 본인이 영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자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서 영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보육 실행에 일조를 할 것이다.

Seo와 Youn[14]은 2000년 이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20곳에서 출간한 영유아 인권 관련 논문 50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2005년에는 3편, 2006~2010년에는 16편, 2011~2015년에는 29편으로 연구물이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서 2010년에는 유아의 여러 제 상황이 고려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와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그들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영아반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 보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루틴한 하루일과 속에서 영아권리존중 보육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아반 담임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어린이집 하루일과 속에서 영아의 권리존중 보육의 실행 정도를 살펴본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적·질적으로 우수하고 균형 있는 영아의 권리존중 내실화를 다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은 어떠한가?
- 둘째, 영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은 어떠한가?
- 셋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 G시에서 소재한 어린이집 241 곳 중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210명으로, 실제 반을 맡으면서 영아와 하루일과를 함께 하는 담임교사만을 표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daycare teacher

Sub-factors	Respondents	Percentage
Academic	College graduation	156 74.3
	University graduation	54 25.7
Carrier	1~3 years	70 33.3
	4~6 years	64 30.5
	more 7 years	76 36.2
	20s	24 11.4
Age	30s	71 33.8
	40s	94 44.8
	more 50s	21 10.0
Major	Childcare·Welfare	116 55.2
	Early childhood education	94 44.8
Total	210	100.0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156명(74.3%), 4년제졸 이상 54명(25.7%)이었다. 경력은 1~3년 70명(33.3%), 4~6년 64명(30.5%), 7년 이상 76명(36.2%)이었다. 연령은 20대 24명(11.4%), 30대 71명(33.8%), 40대 94명(44.8%), 50대 이상 21명(10.0%)이었다. 전공은 보육복지계열 116명(55.2%), 교육계열 94명(44.8%)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 측정도구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15]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등원 1문항, 정리 2문항, 화장실 다녀오기 2문항, 소집단 활동 3문항, 자유선택활동 4문항, 점심 3문항, 낮잠 2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화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해당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보내는 과정 중에서 영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89이었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Measuring instrument tools questionnaire

Sub-factors	Main questions
Go to the daycare center	· “I welcome with the baby’s eye contact when she walks.”
arrangement	· “I inform the infant that it is time to clean up before finishing the play or activity.”
Go to the restroom	· “I always allow infants to go to the restroom freely.”
Small group activities	· “I can tell the infant’s opinions at any time.”
Free choice activities	· “I allow infants to move freely during free-choice activities.”
lunch	· “I do not force food that the infant does not want to eat.”
Nap	· “I do not wake up and wake up excessively for a given nap time.”

2.2.2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한 영아권리 존중보육 측정도구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한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15]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UN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4대 아동권리 기본 원칙 중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자율성존중 4문항, 의사존중 6문항, 개별성존중 7문항, 정보제공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화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해당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보내는 과정 중에서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영아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86이었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Measuring instrument tools questionnaire

Sub-factors	Main questions
Respect for autonomy	· “I do not force children to have activities that they do not want to do.”
Respect for opinion	· “I respond appropriately to infant needs and questions.”
Respect for Individuality	· “I do not treat girl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gender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Provide information	· “I inform the infant of daily work.”

2.3 연구절차

2.3.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16년 7월 12일에서 7월 22일 사이에 J도 I시에 소재한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보육교직원 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의 내용 및 체계의 적절성,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 등을 점검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의 체계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지의 내용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만 3세 미만의 영아반 보육교사임을 고려하여 원도구에 있었던 “특별활동”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는 현행 표준보육과정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서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 특별활동을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도구는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영아반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영유아”를 “영아”로 수정하였다. 질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나는 영유아가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와 같은 문장은 “나는 영아가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이 있다면 강요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나는 영유아가 놀이나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 예고 시간을 여러 번 꼭 알려준다.”와 같이 “여러 번”, “꼭”과 같은 단정적이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문장은 “나는 영아가 놀이나 활동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할 시간임을 사전에 알려준다.”로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수정·보완된 질문 내용은 유아교육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점검받아 본조사용 질문지로 확정하였다.

2.3.1 본조사

본조사는 2016년 8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 J도 G시에 소재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G시에 소재한 27개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 비율로 연구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

고, 동일 비율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총 27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2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관계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 차이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라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학력($t=1.21, p>.05$), 경력($F=.48, p>.05$), 연령($F=1.43, p>.05$), 전공($t=-.29,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학력은 등원시간($t=2.19, p<.05$)과 화장실 다녀오기($t=1.9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사보다 전문대졸 학력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은 등원($F=2.20, p<.05$)과 낮잠($F=3.4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등원시간에는 전문대졸 학력교사와 30~40대 연령교사가,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는 전문대졸 학력교사가, 낮잠시간에는 30~40대 연령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difference of execution level of infant's rights respect in care giving according to daycare center's daily work

Sub-factors	Academic		Carrier			Age				Major	
	College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1~3 years	4~6 years	more 7 years	20s	30s	40s	more 50s	Childcare Welf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Go to the daycare center arrangement	4.78 (.56)	4.58 (.63)	4.71 (.56)	4.68 (.77)	4.80 (.40)	4.62 (.49) ^{ab}	4.65 (.59) ^b	4.85 (.41) ^b	4.61 (1.11) ^a	4.73 (.66)	4.74 (.48)
	$t=2.19^*$		$F=.70$			$F=2.20^*$				$t=.11$	
Go to the restroom	4.41 (.62)	4.33 (.61)	4.35 (.58)	4.36 (.75)	4.44 (.51)	4.29 (.52)	4.42 (.50)	4.38 (.59)	4.40 (1.06)	4.37 (.68)	4.41 (.52)
	$t=.81$		$F=.38$			$F=.26$				$t=.50$	
Small group activities	4.69 (.59)	4.45 (.57)	4.70 (.52)	4.59 (.79)	4.63 (.45)	4.58 (.54)	4.60 (.50)	4.73 (.46)	4.45 (1.17)	4.64 (.67)	4.64 (.46)
	$t=1.94^*$		$F=.22$			$F=1.62$				$t=.02$	
Free choice activities	4.45 (.59)	4.48 (.54)	4.50 (.53)	4.46 (.72)	4.43 (.48)	4.43 (.44)	4.40 (.49)	4.52 (.49)	4.44 (1.11)	4.44 (.63)	4.49 (.50)
	$t=.27$		$F=.44$			$F=.70$				$t=.64$	
lunch	4.56 (.57)	4.47 (.57)	4.55 (.55)	4.48 (.72)	4.57 (.43)	4.48 (.46)	4.54 (.51)	4.56 (.47)	4.45 (1.09)	4.53 (.64)	4.55 (.48)
	$t=.99$		$F=1.90$			$F=.29$				$t=.26$	
Nap	4.43 (.63)	4.36 (.62)	4.47 (.59)	4.29 (.76)	4.47 (.52)	4.30 (.62)	4.37 (.58)	4.49 (.51)	4.36 (1.11)	4.41 (.69)	4.43 (.54)
	$t=.73$		$F=.36$			$F=.91$				$t=.21$	
Total	4.49 (.68)	4.42 (.68)	4.48 (.67)	4.42 (.78)	4.52 (.58)	4.29 (.69) ^{ab}	4.52 (.52) ^b	4.57 (.57) ^b	4.11 (1.25) ^a	4.47 (.72)	4.48 (.62)
	$t=.69$		$F=1.42$			$F=3.40^*$				$t=.00$	
Total	4.54 (.50)	4.44 (.52)	4.54 (.48)	4.47 (.67)	4.55 (.33)	4.42 (.37)	4.49 (.42)	4.59 (.38)	4.40 (1.07)	4.51 (.58)	4.53 (.39)
	$t=1.21$		$F=.48$			$F=1.43$				$t=.29$	

* $p<.05$.

3.2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 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 차이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F=2.62, p<.05$)과 전공($t=-1.71,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아도 보육교사의 연령은 의사존중($F=2.74, p<.05$), 개별성존중($F=2.93, p<.05$), 정보제공($F=2.5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전공에서는 자율성존중($t=1.46, p<.05$), 개별성존중($t=2.70,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 계열 전공교사보다 보육복지 계열

전공교사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학력은 정보제공($t=1.56, p<.05$)에서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사보다 전문대졸 학력교사가, 보육교사의 경력은 의사존중($t=2.01, p<.05$)에서 1~6년 경력교사보다 7년 이상 경력교사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율성존중은 보육복지 계열 전공교사가, 의사존중에서는 7년 이상의 경력교사와 20~40대 연령교사가, 개별성존중은 20~40대 연령교사와 보육복지 계열 전공교사가, 정보제공은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사와 20~40대 연령교사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 보육 실행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관계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과

Table 5. The difference of execution level of infant's rights respect in care giving according to infant overriding principle

Sub-factors	Academic		Carrier			Age				Major	
	College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1~3 years	4~6 years	more 7 years	20s	30s	40s	more 50s	Childcare-Welf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pect for autonomy	4.24 (.69)	4.15 (.69)	4.32 (.64)	4.12 (.81)	4.20 (.60)	4.16 (.64)	4.24 (.61)	4.24 (.61)	4.05 (1.18)	4.28 (.73)	4.13 (.63)
	$t=.81$		$F=1.42$			$F=.49$				$t=1.46^*$	
Respect for opinion	4.25 (.85)	4.26 (.62)	4.36 (.79) ^b	4.09 (.89) ^b	4.29 (.69) ^a	4.25 (.52) ^b	4.30 (.57) ^b	4.32 (.69) ^b	3.79 (1.64) ^a	4.33 (.68)	4.16 (.91)
	$t=-.12$		$F=2.01$			$F=2.74^*$				$t=1.54$	
Respect for Individuality	4.19 (.87)	4.16 (.63)	4.31 (.78)	4.08 (.89)	4.15 (.77)	4.20 (.53) ^b	4.24 (.58) ^b	4.25 (.73) ^b	3.69 (1.62) ^a	4.30 (.67)	4.04 (.94)
	$t=.24$		$F=1.30$			$F=2.93^*$				$t=2.70^*$	
Provide information	3.93 (.91)	4.15 (.65)	4.02 (.87)	3.90 (.92)	4.03 (.79)	3.95 (.70) ^b	4.10 (.59) ^b	4.02 (.81) ^b	3.52 (1.59) ^a	4.03 (.78)	3.93 (.94)
	$t=-1.56^*$		$F=.51$			$F=2.58^*$				$t=.82$	
전체	4.15 (.73)	4.18 (.59)	4.25 (.68)	4.05 (.78)	4.17 (.62)	4.14 (.49) ^b	4.22 (.50) ^b	4.20 (.61) ^b	3.76 (1.40) ^a	4.23 (.64)	4.07 (.75)
	$t=-.22$		$F=1.40$			$F=2.62^*$				$t=1.71^*$	

* $p<.05$.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relationship of execution level in daycare center's daily work and infant overriding principle

Sub-factors	Respect for autonomy	Respect for opinion	Respect for Individuality	Provide information	Total
Go to the daycare center	.48**	.49**	.48**	.37**	.51**
arrangement	.54**	.51**	.47**	.48**	.57**
Go to the restroom	.56**	.44**	.41**	.31**	.48**
Small group activities	.65**	.52**	.48**	.43**	.58**
Free choice activities	.71**	.54**	.52**	.46**	.63**
lunch	.705*	.52**	.55**	.43**	.61**
Nap	.67**	.51**	.54**	.44**	.60**
Total	.73**	.60**	.59**	.50**	.68**

** $p<.01$.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8, p<.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등원시간($r=.37\sim.49, p<.01$), 정리시간($r=.47\sim.54, p<.01$), 화장실다녀오기($r=.31\sim.56, p<.01$), 소집단활동($r=.43\sim.65, p<.01$), 자유선택활동시간($r=.46\sim.71, p<.01$), 점심시간($r=.43$

$\sim.70, p<.01$), 낮잠시간($r=.44\sim.67, p<.01$)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하위영역인 자율성존중, 의사존중, 개별성존중, 정보제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에는 긍정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3.1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 수준 차이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연령, 전공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등원시간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는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사보다 전문대졸 학력교사가, 등원시간과 낮잠 깨우는 시간에는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영아의 권리를 보다 존중하는 보육을 실행하였다. 즉, 30대 이상이면서 전문대를 졸업한 보육교사가 등원시간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 영아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학교 유형에 따라 학습하는 지식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인식은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한 Kim과 Shin[16], Youn과 Kim[17]의 연구결과와 일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연령대의 교사들보다 30대 이상 연령교사들이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나 지식 등이 높았다는 Katz[1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고 할 수 있다. 30세 이상의 교사들은 교직 생활의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 연령대의 교사들은 그 동안 다양한 요구가 있었던 영유아를 담당했던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어 낮은 연령대의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업과 학습자들을 다루는 능력이 우수한 편이다[19]. 따라서 높은 연령대의 교사들은 그 동안 자신이 익힌 지식과 연마하였던 기술들을 영아들과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이 영아라는 점과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에 소개한 예비보육교사 양성대학의 특성 및 졸업 후 취업 노선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J도 G시는 인구 28만의 중소도시이지만 2개의 전문대학과 1개의 4년제 대학에서 적지 않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에 소재한 2개 전문대의 유아교육·보육복지 학과에서는 주간반과 야간반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반에서는 대부분 만 30세 이상의 만학도들을 보육교사로 배출하고 있다. 이들이 졸업을 한 후, 만 3세 이상의 유아반 담임교사보다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반 담임교사로 취직됨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교사를 구인할 때 당해 연도에 졸업을 한 일명 ‘아가씨 선생님’보다 나이가 적당히 있고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엄마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보육교사의 결혼 여부와 자녀 양육의 경험이 영아와 하루일과를 보내는데 필요조건은 아닐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것이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영아의 발달 특성상 엄마처럼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연령대의 교사를 원하고 있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본 연구의 대상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3세 미만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혼이면서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30~40대의 ‘엄마 선생님’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30대 이상의 전문대 출신 보육교사들이 영아가 등원하는 시간과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시간, 그리고 집처럼 안락하고 포근하게 낮잠을 재우는 시간에 영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

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영아의 하루일과를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이미지로 영아를 보육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권리 존엄성 측면을 고려하여 영아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보육교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 습관 등이 우선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3.2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 차이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과 전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아도,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는 의사존중, 개별성존중, 정보제공에서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교사의 전공에 따라서는 자율성존중, 개별성존중에서 유아교육 계열 전공교사보다 보육복지 계열 교사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였다. 한편, 보육교사의 학력과 경력에서는 전체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영역인 정보제공에서는 전문대졸 학력교사보다 4년제졸이상 학력교사가, 의사존중에서는 7년 이상 경력교사보다 1~6년 경력교사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 수준은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문제 1에서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영아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한다는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 2에 대해 논의를 첨언하자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권리존중보육은 어린이집에서 하루일과를 함께 보내는 교사와 영아 간의 실제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으로, 교사의 실천적 행동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높은 연령대의 교사들은 문서화된 수업계획안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기 보다는 실제 활동을 하면서 영아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Kim과 Youn[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 특히, 영아반은 그들의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왕성하여 분주하게 계속 움직이고 혼자 하려고 애쓰는 시기로 성인의 완벽한 보호와 감독은 필수이다[21][22]. 이러한 상황은 초임 교사보다 어

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서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사의 전공에 따라서도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 수준은 보육교사의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 계열 전공보다 보육 복지 계열 출신 보육교사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영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보다 능숙하게 실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보육복지 계열을 전공한 보육교사들이 영아의 자율성, 개별성을 보다 존중하고 있었다.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전공은 본인이 현직에 종사할 때 인지적·실천적 측면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해당 교육 기간 동안 교사가 어떤 대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기회를 많게 하는 강력한 변인이다[23]. 10여 년 전 국가 수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영유아기에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어린이집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보육의 수요자들은 보다 우수한 공급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였고 보육의 공급처인 어린이집에서는 우수 보육교사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게 되었다. 이에 보육교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사양성기관에서는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학과들이 다수 개설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유아교육 전공 보육교사보다 보육과 복지 전공 보육교사들이 현직에 종사하게 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3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 보육 실행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간의 관계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 수준과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실행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하위영역인 등원시간, 정리시간, 화장실 다녀오기, 소집 단활동, 자유선택활동시간, 점심시간, 낮잠시간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하위영역인 자율성존중, 의사존중, 개별성존중, 정보제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을 많이 할수록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영

아와 하루일과를 보내는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영아의 권리존중보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갈등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행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Lee[24]의 견해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러한 영아권리존중보육과 최우선의 원칙의 관계로 유추해 볼 때, 보육교사는 자기 성장을 통해 역할 수행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교사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육교사의 성공적인 보육을 지원해 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25]. 보육교사의 능력을 지원하는 내·외적인 환경이 풍부하면 자신의 교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26]. 보육교사는 이를 통하여 자신의 발달은 물론 영아를 보다 잘 가르치려는 열의를 갖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영아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들은 매 순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27], 교사 자신이 실시하는 교육과 보육 수행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은 타 교육기관과 달리 교육 환경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육교사가 지닌 능력에 따라 교실 현상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교수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이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28]. 영아의 권리존중보육 수행력이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교사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사의 신념에 따라 보육의 목표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리와 자율성 또한 확대·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영아반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 실행 정도와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보육 실행 정도를 살펴해보았다. 최근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조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J도 G시 또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6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곳이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많은 민관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아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논

의하고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아동권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권리의 정의 및 개념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권리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미만의 영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내용과 연령의 폭이 크고 넓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영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과 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실천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 실천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에 준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력을 차이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 실천력 및 영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관련변인을 상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변인과 본 연구의 주제와 내용에 적합하게 전공 변인을 새롭게 선택하였다. 영아반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교육 계열과 보육복지 계열로 구분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내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에 적합한 관련변인을 꾸준히 발견해 내어, 이를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해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영유아의 아동학대 예방 및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과운영의 현황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실제 교사와 영아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장에 보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overnment, Declare this year as the first year of eradication of child abuse"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accessed March, 29, 2016.)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 Welfare Act」 Some revisions Draft bill State Council Decision",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accessed March, 15, 2016.)
- [3] J. J. Youn, "Correct awareness and practice of children's rights", mjbnews, http://www.mjbnews.com/sub_read.html?uid=235783§ion=sc7§ion2 (accessed May, 09, 2016.)
- [4]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Child Welfare Act", Government Complex - sejong: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 (accessed February, 02, 2017.)
- [5] M. S. Le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about child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6]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Child Welfare Act", Seoul: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http://korea1391.org/new/page/law.php> (accessed April, 03, 2016.)
- [7] UNICE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unicef.or.kr> (accessed February, 17, 2017.)
- [8] J. W.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teacher's educational belief and rights of respecting infant care's nurs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9] Y. S. Kim, J. J. Youn, J. J. Kim, "Early childhood safety management", Gyeonggi: Community, 2013.
- [10] Y. M. Seo,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hild impact assessment indicators based on young children's rights",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6.
- [11] Y. S. Kim, J. J. You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regarding the content and instructional methods in safe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0, no. 4, pp. 49-78, 2010.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0.30.4.003>
- [12] K. O. Na, K. H. Kim, J. I. Kwak, "Childcare practice", Seoul: Hakjisa.
-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tudy on support for establishment of basic policy for child polic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 [14] Y. M. Seo, J. J. Youn, "A Trend analysis if theses on child rights: Research centered on papers publish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s registered with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ference, 2016.
- [15] J. S. Kim, "Meaning of care-giving for infants and children's rights respect in care-giving teachers, and its implementation standard", Sookmyung Wonan's Unieversity Doctoral thesis, 2009.
- [16] H. J. Kim, E. S. Shin, "Preservice and In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Review, vol. 12, no. 3, pp. 239-263, 2008.
- [17] J. J. Youn, Y. S. Kim, J. L. Kim,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intelligibility of the kindergarten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evaluation criteria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criteria's suitability",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vol. 15, no. 1, pp. 209-238, 2012.

- [18] L. G. Katz, "The professional early childhood teacher", *Young Children*, vol. 39, no. 5, 3-10, 1984.
- [19] J. J. Youn, "Childcare teachers' content knowledge of children's language education as it relates to efficacy of language teaching for children and classroom language environmen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9, no. 3, 5-22, 2009.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09.29.3.001>
- [20] J. Y. Kim, J. J. Youn,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heir efficacy and role performance", *Child Education*, vol. 20, no. 4, pp. 127-137, 2011.
- [21] H. Y. Noh, "A study on the meaning of infant's daily work at the daycare center: Focused on diapering, sleeping and snack and lunch tim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8, no. 4, pp. 457-478, 2014.
- [22] Y. S. Kim, J. J. Youn, J. J. Kim, "Early childhood safety management", Gyeonggi: Community, 2013.
- [23] M. Brog, "Teacher's beliefs", *English Language Teachers Journal*, 55, pp. 186-188, 2001.
DOI: <https://doi.org/10.1093/eltj/55.2.186>
- [24] D. R. Lee, "Analysis on perception gap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regarding respect for young children' right during child care center's and on teachers' conflict",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25] K. R. Le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professional environment of kindergarten and teacher self-efficacy",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4.
- [26] M. P. Jalongo, J. P. Isenberg, "Exploring your role. A practitioner's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J: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Inc, 2000.
- [27] A. Liberman, M. B. Miles, "Teachers transforming their world and their w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1999.
- [28] K. J. Hong, H. Y. Lee, "A study on leveling up the childcare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enlarging method of professional man powe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2, pp. 125-154, 2008.

윤진주(Jin-Ju Youn)

[정회원]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교육, 아동발달, 아동복지